

제7장 섬유산업

1. 2023년 상반기 동향 및 진단

□ 수출은 글로벌 경기 위축 심화에 따른 의류 소비 급감으로 큰 폭의 감소세 시현

○ 상반기 수출은 전년 2분기 이후 이어진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속화하면서 감소폭이 확대되어 큰 폭의 감소를 기록

- 각국의 긴축정책 및 고금리, 미국 및 중국의 경제성장을 둔화, 러-우 사태에 따른 경기 불안, 금융권 불안 요인, 고물가 등의 요인으로 글로벌 섬유 수입 수요는 빠르게 둔화

· 섬유 수출(전년동기비, %): (2022.2분기) -1.9 → (3분기) -5.8 → (4분기) -18.7 → (2023.1분기) -15.1

○ 국가별로는 미국, 일본 등 선진권의 의류 수요 위축으로 베트남, 중국 등 생산기지향 섬유소재 수출 급감

- 1분기 기준 전년동기비 수출(%): 베트남 -15.3, 중국 -9.9, 미국 -24.3, 인도네시아 -26.9, 일본 -9.5 등

□ 내수는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의류 소비 증가로 소폭 증가 전환

○ 상반기 내수는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한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여건 개선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으로 의류 소비가 늘며 소폭 증가

- 엔데믹 본격화에 따른 야외활동 및 여행 확대로 의류 소비 증가, 온라인 거래의 지속 성장과 더불어 대면활동 증가로 온·오프라인 소비가 늘어나는 등 내수 확대 전인
- 의류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 전년동월비): (1월) -0.6% → (2월) 15.4% → (3월) 10.8%
- 의류의 온라인쇼핑몰 거래액 증감률(전년동기비, 통계청): (1월) 2.3% → (2월) 15.1% → (3월) 14.0%
- 백화점 매출 동향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봄철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 등으로 여성캐주얼, 아동·스포츠 중심으로 대폭 증가 추세
- 반면 백화점의 해외 유명브랜드 제품 판매액은 자산가치 하락 및 고금리 지속 등으로 지난 1월 전년동월비 -7.2%에 이어 2월 2.1%로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젊은 명품족의 이탈 및 실질소득 감소로 명품 소비는 다소 둔화

□ 생산은 급격한 수출 둔화 및 감소 등 가동률 하락, 화섬사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 상반기 생산은 대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가동률 조정 등 생산 물량 축소로 감소
 - 선진권의 경기 부진에 따른 의류 소비 위축으로 글로벌 유통바이어 및 브랜드의 섬유소재 소싱이 축소되어 생산 위축
- 의류 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내수 증가를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국내 섬유소재 생산에의 선순환 파급효과는 미흡
 - 금년 1분기 의류 수입은 전년동기비 7.8%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의류 생산은 3.8% 감소
- 품목별로는 의류 생산 감소로 의류용 섬유소재의 생산이 모두 감소
 - 화섬직물 및 편물 감소에 따른 국산 화섬원사 수요 감소, 수입원사 사용 확대 등으로 화섬 생산물량은 전년동기비 큰 폭 감소
 - 화섬 생산 증감률(전년동기비, 통계청): (1월) -35.9% → (2월) -26.5% → (3월) -31.7%
 - 면방업계 역시 글로벌 의류 소비 부진에 따른 면사 수요 감소로 감산을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하고 수요 감소에 따른 재고 체증 및 면사 값 하락 지속 등으로 업체의 채산성 악화

· 방직 생산 증감률(전년동기비, 통계청): (1월) -13.6% → (2월) 0.3% → (3월) -11.0%

○ 중국과의 경쟁 심화 및 경쟁력 저하에 따른 국내 화섬사의 사업 정리 및 생산능력 축소

- 금년 상반기에 국내 화섬사가 폴리에스터 장섬유(PF) 일반사 사업을 정리함에 따라 생산 능력 축소로 생산 감소 불가피

· 2023년 2월 말 TK케미컬이 연산 12만 톤, 4월 24일 성안합섬이 연산 10만 톤 규모의 폴리에스터 장섬유(PF) 일반사 사업을 정리, 이는 전체 PF 생산능력의 약 33%에 해당하는 수준

□ 수입은 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의 수요 부진으로 소폭 감소

○ 상반기는 의류 내수 확대로 의류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국내 생산 위축으로 생산투입용 섬유소재의 수입 수요가 다소 줄면서 감소로 전환

- 불황기 중저가 제품 소비 확대 및 해외 생산 의류의 역수입 증가 등으로 의류 수입 확대

- 섬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생산투입용 원사 및 직물 등의 수입 수요가 줄고, 제조업 경기 부진에 따라 산업자재용 섬유소재의 수입도 부진

- 상반기 원유 등 원자재 안정화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도 수입 감소에 영향

2. 2023년 하반기 국내외 여건 변화

(1) 대외 여건 변화

□ 세계 수요

○ 하반기 세계 섬유 수요는 글로벌 여건 악화 지속으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러-우 사태 장기화, 미국·EU 등 세계 경제성장 둔화, 주요국의 긴축재정 및 금리 인상

〈표 7-1〉 섬유산업의 세계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은행 위기,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세계 경기의 제한적 성장 및 의류 소비 부진	☯
· 코로나19 영향 완화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세	☀
· 디지털 전환 및 친환경화에 따른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등은 민간 소비 및 세계 산업 활동을 제약하여 섬유·의류 수요를 위축

- 지난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를 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 및 유럽의 환경규제 강화, 글로벌 디지털 전환으로 고기능성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 지속
- 리사이클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전기차 성장에 따른 아라미드 타이어코드, 5G 확대에 따른 아라미드, 수소차 저장용기용 탄소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수입국의 의류 수입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소폭 감소할 전망
- 우리나라의 주요 의류 생산기지인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의류 수입국의 수입 수요 위축으로 수출의류용 원사 및 직물 등 섬유소재 조달이 감소하면서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
-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 내수가 회복하면서 대중 섬유 수출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국 섬유의 대세계 수출이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크지 늘지 못해 수출의류용 섬유소재의 수입 수요는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및 여행 확대 등이 주요 긍정 요인

〈표 7-2〉 섬유산업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수요 전망과 특성

	비중(%) ¹⁾	상반기 추정	하반기 전망	특성(수요 변화 요인 및 경쟁 상황)
베트남	20.4	↑↑	↑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오더 감소로 부진 · 한류 확산에 따른 한국산 제품 수요 증가
미국	13.6	↑↑	↑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및 의류 소비 감소 ·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중국	12.6	↑	↔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수출 감소 및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탈중국 지속 · 리오프닝에 따른 내수 회복
EU	9.4	↑↑	↑	·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심리 위축 · 러-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섬유 수요 부진 ·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인도네시아	6.6	↑↑	↗	· 세계 의류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용 소재 수요 감소
일본	5.2	↑	↗	· 민간 소비 회복세 약화로 의류 소비 부진 · 엔화 약세 · 고기능성 섬유소재 수요 증가
전세계	100.0	↑↑	↑	·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에 따른 섬유 수요 부진

주: 1) 전체 수출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2022년 기준).

2)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해외 생산

○ 섬유기업의 해외 생산은 세계 긴축재정에 따른 고금리, 인플레이션 지속, 러-우 사태 장기화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섬유·의류 수요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생산이 감소할 전망

○ 베트남은 생산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이 병존하는 가운데, 탈중국 현상에 의한 반사이익 기대와 다양한 무역협정 효과에 의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이 생산 확대 요인으로 작용

- 다만 글로벌 경기의 제한적 성장에 따른 의류 수요 부진은 베트남의 의류 및 의류용 섬유 생산 증가를 제약하고, 동시에 현지 진출한 국내 기업의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베트남 및 중국의 봉쇄에 따른 반사이익을 가장 크게 누렸던 인도네시아의 생산 역시 글로벌 섬유 수요 부진 영향으로 생산 증가는 어려울 전망

〈표 7-3〉 섬유산업의 해외 생산 현황과 전망

지역	2023년 상반기 추정	2023년 하반기 전망	2023년 전망
베트남	↗↗	↗	↗↗
인도네시아	↗↗	↗	↗
중국	↗	↘	↘
합계	↗↗	↗	↗

주: (전년동기비) 증가율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 중국은 리오프닝으로 소비 증가에 따른 생산 증가가 예상되나,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경우 생산기지의 탈중국 현상과 더불어 수출용 의류 및 원단 위주의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증가 효과는 제한적

- 또한 중국의 섬유소재 품질 및 경쟁력 제고로 현지 조달 비율이 높아진 것도 현지 진출 국내 기업의 생산 증가를 제약

□ 제품단가 변화

○ 섬유제품의 단가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수요 부진에 따른 유가 및 화섬원료 가격 하락, 원면 및 원사 가격 하락세 지속, 비대면 온라인 거래의 지속 확대, 고환율에 따른 글로벌 바이어들의 단가 인하 압력 등이 단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

〈표 7-4〉 섬유산업의 제품단가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원유, 화섬원료, 원면, 염료 등)	↘
· 수요 부진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및 바이어의 단가 인하 압력	↘
· 온라인 거래 지속 확대	↘

주: (전년동기비) 단가 변화, ↗↗ 큰 폭 하락, ↗ 다소 하락, ↗ 다소 상승, ↗↗ 큰 폭 상승.

(2) 국내 여건 변화

□ 국내 수요

- 하반기 국내 경기의 성장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 및 부동산 시장 불황 지속 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섬유 수요에 부정적 영향 예상
- 하반기에도 국내 의류 소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 및 주요 자산가치 하락 및 실질소득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감소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 예상
- 국내 제조활동의 둔화가 예상되면서 산업용 자재 및 의류용 소재의 수요 둔화 불가피, 반면 섬유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고도화에 따른 수요 증대 전망

〈표 7-5〉 섬유산업의 국내 수요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경기 성장세 둔화, 부동산 시장 불황,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소비심리 위축	☹
· 국내 제조활동 둔화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	☹
· 경기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대로 중저가 의류 소비 증가	☺
·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 공급능력

- 국내 섬유업체의 생산능력은 국내 투자 및 해외 투자에 의해 결정되며, 코로나19 이후 섬유산업의 생산능력은 투자 부진으로 감소세 지속
- 코로나19 이후 대부분의 섬유기업들은 범용제품의 수출 및 내수 변화에 가동률 조정으로 대응, 일부 생산효율을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 진행
- 특히 화섬산업의 경우 금년 상반기에 TK케미컬과 성안합섬이 중국산 범용 폴리에스터 장섬유(PF)와의 가격경쟁력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면서 생산능력 및 생산량 감소 불가피, 범용제품에서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

- 반면 화섬업체 중심으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에 대응해 슈퍼섬유 관련 대규모 설비 증설 투자가 진행되어 생산능력은 지속 확대
- 효성첨단소재: 2023년 4월 탄소섬유 2,500톤 생산설비 증설(469억 원) 완료 이후 상업 가동 돌입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까지 아라미드 생산능력 7,500톤 증설(2,300억 원) 진행 중
 - 태광산업: 2025년까지 아라미드 생산능력 3,500톤 증설(1,450억 원) 진행 중
 - 화섬 원사의 경우 주력 품목인 폴리에스터사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산자용 소재의 해외 증설도 동시에 진행
 - 효성첨단소재는 2022년부터 베트남에 타이어코드 생산라인 증설 진행 중

〈표 7-6〉 섬유산업의 공급능력 변화 주요 요인과 영향

주요 요인	영향 정도
· 첨단소재 설비투자 확대	☼
· 생산 효율화(생산시스템 개선)	☼
· 섬유 경기 불황에 따른 감소 및 폐업 등 공급 감소	⬇⬇
· 국내 생산설비 해외 이전	☂

주: (전년동기비) 영향 정도, ⬇⬇ 큰 폭 감소, ⬇ 다소 감소, ☼ 다소 증가, ☼☼ 큰 폭 증가.

〈표 7-7〉 섬유산업의 설비투자 전망 및 원인

전망	2023년 상반기	☼	2023년 하반기	☼
투자 종류	· 기존 설비 확장, 연구개발			
투자 주요 특성	·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에 따른 첨단 섬유소재의 수요 확대 대응 설비 증설 투자 진행: 전기차, 5G, 수소차 확대 등 대응 - 효성첨단소재: 2023년 4월 탄소섬유 2,500톤 생산설비 증설 완료(469억 원) - 코오롱인더스트리: 2023년까지 아라미드 생산능력 7,500톤 증설 (2,300억 원) 진행 중, 금년 완료 계획 2024년까지 구미공장에 연간 1,500톤 규모의 아라미드 펄프 생산라인 증설 계획(220억 원) - 태광산업: 2025년까지 아라미드 3,500톤 규모 설비 증설(1,450억 원) 진행 중 - 기획, 생산공정, 유통/홍보 등 밸류체인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대응 설비 및 R&D투자 진행 - 범용 섬유소재 및 봉제 의류 등은 설비효율을 위한 개체 및 유지보수 등 소극적 투자 진행 			

주: 1) 전망: (전년동기비) 증가를 기준, ⬇⬇ -10% 이하, ⬇ -10~-5%, ☼ -5~0%, ☼ 0~5%, ☼ 5~10%, ☼☼ 10~20%, ☼☼☼ 20% 이상.

2) 투자 종류: 신규 설비 도입, 기존 설비 확장, 합리화, 연구개발, 정보화, 인력양성 등.

3) 투자 주요 특성: 단순 생산능력 확대, 설비효율 증대를 위한 개체, 유지보수 등.

3. 2023년 하반기 전망

□ 수출은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감소세 지속

- 하반기 수출은 지정학적 위험, 주요국들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수 위축,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로 감소세 지속 전망
- (증가 요인) 제품의 수요 구조 고도화 및 제품 첨단화, 주요 국가의 정치적 요인, 기술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및 지속가능 성장 요구, 탈탄소 대응 등으로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수요 확대에 관련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 전망
 - 전기차(아라미드 타이어코드), 탄소섬유(CNG 고압용기, 케이블용, 재생에너지용 등), 5G(광케이블용 아라미드) 등
 - 하반기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증설분(2,500톤/년) 가동, 연말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증설분(7,500톤/년) 가동 시 수출 증가 예상
-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본격화하면서 내수 회복 및 여행 증가 등에 따른 의류 수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한류 열풍이 일본, 동남아, 미국, 유럽에서 중동 등지로 영역을 넓혀가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선호 확대에 의류 수출에 긍정적
- (감소 요인) 지정학적 위험, 고금리 및 고물가,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재로 감소
 - 러-우 사태 지속, 은행 위기 문제 등 불확실성 병존, 주요국의 통화 긴축 및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등으로 글로벌 경기 및 민간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의류 수출 감소 불가피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요 해외 생산기지의 의류 수출이 감소하면서 생산기지향 의류용 소재 수출 감소 전망
 - 특히 경기침체, 사업 철수 등으로 인한 전통 의류용 화섬제품인 폴리에스터 장섬유의 수출 감소

〈표 7-8〉 섬유산업의 수출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슈퍼섬유 등 고기능성 섬유 수요 확대 ·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산 의류 소비 증가 · 중국 리오프닝 효과의 본격화로 내수 개선에 따른 의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통화긴축 및 세계 경기 성장세 둔화 ·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소비 둔화 · 러-우 사태, 미국 은행 파산 위험 등 불확실성 상존 · 글로벌 산업생산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요 위축 · 해외 생산 확대 · 수요 위축에 따른 경쟁국 간 글로벌 경쟁 심화 ·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단가 상승 ·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의 수출 감소에 따른 국산 소재 수입 수요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성장 둔화 및 소비 위축에 따른 의류 소비 감소, 글로벌 수요산업 경기 위축에 따른 산자용 섬유 수요 부진으로 수출 감소

- 전년동기비 수요 감소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급상승했던 수출단가 하락, 수요가 줄어든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글로벌 바이어의 수출단가 인하 압력,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 등은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글로벌 산업생산 위축으로 산자용 섬유소재의 수출 둔화 전망

□ 내수는 소비심리 위축, 의류 소비 둔화 및 국내 생산 활동 부진으로 감소세 전환

- 하반기 내수는 경기 부진, 민간 소비 둔화, 섬유 및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둔화 등에 따른 수요 위축과 전년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세로 전환
- (증가 요인) 5월 11일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하반기 심리적 장벽 제거에 따른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 및 외부 활동 증가 등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내수 증가
 - 해외여행의 정상화, 코로나19 영향 완화, 골프에 이어 테니스·등산 등 야외활동 증가로 인한 의류 소비 증가 및 기능성 스판덱스 등 의류용 소재의 내수 판매 확대 예상
 - 경기 및 민간 소비 부진으로 중저가 의류 소비가 확대되는 불황형 소비 추세 강화
- (감소 요인) 부동산 가치 하락 및 이자 부담 상승,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구매력이 낮아져 의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섬유소재의 내수 부진 심화
 - 경기 위축 및 구매력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내수 둔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표 7-9〉 섬유산업의 내수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 정상화 및 외부 활동 증가에 의한 의류 수요 증가 · 온오프라인 거래 동반 확대 · 중저가 의류 및 섬유소재 수입 확대 · 고부가가치 차별화 제품 수요 확대 · 하반기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경기 둔화, 금리 상승, 고물가, 부동산 시장 불황 등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소재 수요 증가세 둔화 · 섬유산업의 생산 부진에 따른 산업용 섬유 수요 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및 민간 소비 위축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섬유 내수 성장세 둔화

- 상반기의 의류 소비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겠으나 의류 소비 확대는 수입 의류 의존도가 높은 반면, 국내 생산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의류용 소재의 내수 증가는 다소 제한적

- 국내 제조업의 생산 둔화에 따른 산자용 소재 수요 부진

□ 생산은 국내 생산 기반 약화 및 국내외 수요 둔화로 감소

○ 하반기 섬유 생산은 첨단소재 생산 및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요 부진 및 국내 생산 기반 약화로 감소세 지속

○ (증가 요인) 디지털 전환 강화, 친환경 트렌드 대응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고기능성 섬유소재 생산 확대 등

- 국내외 수요산업의 첨단화에 따른 국산 섬유소재의 고기능·고성능 제품의 생산 확대
 - 하반기 효성첨단소재의 탄소섬유 증설분(2,500톤/년) 가동, 연말 이후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아라미드 증설분(7,500톤/년) 가동으로 생산 증가
 - 레귤러 제품의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친환경(리사이클, 생분해소재 등) 소재의 생산은 아직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지속적인 확대 추세

- 스판덱스, 냉감기능성 소재 등 고기능성 소재 및 의류 수요 확대 예상

-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른 여행 및 야외활동 증가 등 내수 확대로 스판덱스 수요가 상반기부터 회복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더욱 개선될 전망
- 높은 에너지 가격과 올해 무더운 여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냉감소재 활용 의

〈표 7-10〉 섬유산업의 생산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친환경 트렌드 대응 고부가 제품 생산 및 투자 확대 · 냉감기능성 소재, 스판덱스 등 고기능성 섬유소재 및 의류 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및 내수 감소 · 해외 생산 지속 확대 및 역수입 증가 · 폐업 등 국내 생산 감소세 지속 · 해외 중저가 섬유소재 및 의류 수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경기 부진에 따른 수출 및 내수 부진으로 생산 감소

류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질 전망

○ (감소 요인) 세계 경기 둔화 및 범용제품 중심의 대내외 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와 재고 증가가 이어지며 생산 감소 및 자발적 사업 정리 등 구조조정 단행

- 국내외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로 수출이 감소하고 내수 증가세 둔화로 생산 감소

- 가격경쟁력 제고 목적의 해외 생산 확대

· 세아상역(주): 2022년 8월 코스타리카에 제2 방적공장 설립, 2022년 하반기 제3 방적공장 완공 예정

· 한세실업(주): 2024년 방적-편직-염색 등의 수직계열화를 목표로 중남미 투자(2026년 3억 달러)

- 그 외에 글로벌 경쟁 심화, 수요 감소에 대응한 감산, 경영난에 직면한 자발적 폐업 등 생산 위축

· 폴리에스터 장섬유(PF) 일반사의 대내외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수출·내수 감소 및 재고 증가, 수익성 악화로 PF 일반사 생산 및 출하 감소

□ 수입은 의류 수입 확대로 지속 증가하나 내수 둔화로 제한적 증가세 전망

○ 하반기 수입은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수요 확대로 증가하나, 내수 경기 부진으로 증가세는 둔화

○ (증가 요인) 경기 둔화에 따른 가성비 중시 의류 수요 확대 및 국내 생산이 감소한 PF 일반사 감소 물량의 수입 대체 등으로 수입 증가

- 베트남, 중국 등 해외 생산제품의 수입 확대 지속
- 하반기 경기 및 민간 소비 부진에 따른 불황형 소비 확산으로 고가의 명품보다는 중저가 수입 의류 소비 확대
- 전년동기비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단가 인하로 수입 수요 확대

○ (감소 요인) 내수 부진에 따른 의류 수입 증가세 둔화 및 산자용 소재 수입 위축

- 경기 둔화,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수입 증가세 둔화
- 수요산업의 생산활동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 수요 위축
- 국산 중간재·가공재의 해외 수요 감소로 섬유 원자재 및 섬유소재(생지) 수입 감소

〈표 7-11〉 섬유산업의 수입 증감 요인

증가(긍정적) 요인	감소(부정적) 요인	종합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생산제품 역수입 증가 ·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 · 국내 공급이 감소한 PF 일반사 수입 확대 · 수입단가 하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에 의한 이자 부담 증가, 인플레이션 등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의류 및 의류용 섬유소재 수요 감소 · 수요산업의 부진으로 산업용 섬유 수입 수요 위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경기 대응 중저가 의류 수입 확대로 수입 확대

〈표 7-12〉 섬유산업의 수급 전망(원화 기준)

단위: 십억 원,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4,656 (10.6)	8,008 (17.0)	8,402 (7.6)	16,410 (12.0)	7,214 (-9.9)	6,676 (-20.5)	13,890 (-15.4)
내수	62,451 (-8.3)	29,824 (-3.5)	34,305 (8.8)	64,129 (2.7)	30,122 (1.0)	33,477 (-2.4)	63,598 (-0.8)
생산	56,141 (-9.8)	26,338 (-7.7)	27,413 (-0.7)	53,750 (-4.3)	25,450 (-3.4)	26,910 (-1.8)	52,360 (-2.6)
수입	20,967 (9.9)	11,495 (24.6)	15,295 (30.2)	26,789 (27.8)	11,886 (3.4)	13,243 (-13.4)	25,128 (-6.2)

주: 1)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2) 내수는 생산+수입-수출로서 재고 포함.

〈표 7-13〉 섬유산업의 수출입 전망(달러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2021	2022			2023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수출	12,807 (14.0)	6,470 (5.6)	5,831 (-12.7)	12,301 (-4.0)	5,590 (-13.6)	5,480 (-6.0)	11,070 (-10.0)
수입	18,299 (12.9)	9,287 (12.6)	10,614 (5.6)	19,901 (8.8)	9,210 (-0.8)	10,870 (2.4)	20,080 (0.9)

주: () 안은 전년동기비 증감률.

4. 시사점

○ 중국의 저가 투매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PF 일반사의 국내 생산 중단 및 국내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 국내 화섬직물 및 니트직물 등 미들스트림의 경쟁력에 미칠 영향 조사
- 폴리에스터 장섬유 생산 감소로 인한 수요 업계 수급애로 문제 인식 및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방안 필요
- 국내 조달 불가능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PF 일반사의 수입관세 인하 필요
- 화섬 메이커 및 화섬직물·니트직물의 고부가 제품 차별화를 위한 설비투자 및 R&D 투자 지원

○ 친환경 대응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

- 친환경 트렌드 및 글로벌 브랜드의 니즈에 따라 PET병, 폐섬유·폐의류 리사이클 확대 추진 및 관련 애로 해소 지원 필요
 - 물리적 리사이클 품질 개선 필요, 케미컬 리사이클 R&D 확대 지원 필요
 - 섬유, 식품포장재 업종의 원료 확보 경쟁 심화
 - 저가/가짜 수입산의 시장 유입 확대 등 애로 대응

- 고품질 원료 확보, 리사이클 진위 여부 분석, GR 인증 및 이를 활용한 공공기관(군·경·관 및 공공기관 등) 의무구매 확대 등을 통한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
- 화섬업계는 육군의 활동복(국산 리사이클 소재 20% 이상) 규격 개선을 제안 중이며, 리사이클 소재로 만든 경찰복의 시착 테스트가 완료된 상태로 이에 대한 추가 진행 필요

○ 생산 및 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고성능 슈퍼섬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여건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원

- 중국에 집중된 원료의 소싱처 다변화 또는 국내 투자 검토
- 수출(85% 수준) 위주 시장의 내수 전환 필요
 - 국산 소재 활용 확대 및 국내 수요 창출을 통한 안정적인 내수 기반 확보 정책 및 지원 방안 필요
- 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원재료 투자 유도 및 관세 감면(공장 자동화 기기 관세 감면 대기업 적용, 할당 관세) 적용 확대

○ 내수 확대 및 국내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기반 구축

- 안정적인 내수 기반 구축을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강화
 - 스트림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다운스트림 및 브랜드에서 국산 소재 활용을 활성화하고 다운스트림의 국내 생산 활성화 등 섬유산업 기반 유지 대책 필요
- 고기능 첨단소재 및 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수요 기반 확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중심의 국산 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 필요
 - 전투복에 한정된 국방 섬유제품의 국산 소재 사용 제품 조달을 기타 섬유 피복류 부분까지 품목 확대 필요
 - 85~90% 수출되는 탄소섬유, 아라미드 등 고성능 첨단소재의 국산화 유도 및 공공조달 분야의 국산 소재 사용 확대 방안 마련으로 내수 활성화
- 봉제, 스판덱스, 산자용 섬유 등 해외로 투자되는 기업의 국내 투자 유도 및 리쇼어링 지원정책 필요

〈표 7-14〉 섬유산업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

	주요 내용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화되는 기후·환경 규제 및 디지털 전환 트렌드 대응 · 내수 활성화 지원 · 수출 확대 지원 · 국내 생산 기반 강화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사이클 소재의 내수 기반 확립 지원 · 고성능 슈퍼섬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 여건 개선 및 투자 확대 지원 · 내수 확대를 위한 스트림 간 협력 기반 구축 · 대외환경 변화 대응 니치마켓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지원 · 국내 화섬 생산 중단 및 국내 공급망 차질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 대외 환경변화 대응 니치마켓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수출 확대 지원

- 단기적으로 G2(Group of Two, 미국·중국), EU 및 러시아의 정치적 대립 여건에서 니치마켓 발굴, 경제 호황의 중동에서 새로운 기회 포착
 - (글로벌 탈중국화) 미·중 갈등에 따른 미국 및 EU 바이어의 중국산 비선호 추세로 가격경합의 국내산 섬유소재 반사이익 활용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수출 지원
 - (중동지역 호황) 산유국의 높은 경제 성장세, 관광 활성화 여건 등을 활용하여 의류용 소재 및 섬유제품 등의 발굴 및 수출 확대 지원
- 미국, 인도, 튀르키예 등 주요 수출국의 반덤핑/세이프가드 등 과도한 보호무역 제재(수입 규제) 해소 지원
 - 화섬은 현재 4개 국가로부터 9건의 수입 규제(AD 7건, SG 2건) 적용 중
 - 인도, 튀르키예 등의 주요 시장 사수를 위한 적극적 대응 지원과 함께 미국, 튀르키예 등의 장기간(20년 이상) 지속되는 수입 규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필요
 - 최근 튀르키예 PSF(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 일몰재심 대응 중(2000년부터 규제 중)